

대입준비생들의 치과위생사에 관한 인식도 조사

김동열 · 이승훈¹

서라벌대학 치위생과 · ¹영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Recognition of college-preparatory students for dental hygienist

Dong-Yeol Kim · Seung-Hun Lee¹

Dept. of dental hygiene, Sorabol College

¹*Dep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recognition of college-preparatory students who interested and prevented themselves in oral health diseases for dental hygienist in Yeungnam South Korea.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28 students who was seriously worried for career and entrance into a school. The survey period was from August 16th 2011 to November 26th 2011,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high school students in Yeungnam and the preparatory students who visited S college in Gyeongju.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87.2% of the subjects have recognized about the name of dental hygienist, 51.5% have distinguished dental hygienist in the clinic, and 67.4% have recognized about education of dental hygienist that was more than a college graduate. The received services from dental hygienist was scall- ing(15.6%), assistant of treatment(14.7%), tooth brushing instrument(11.5%), Reception & receipt(11.0%), and etc.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have recognized that dental hygienist was the professional(4.82 points), the impor- tant role in oral health(4.88 points), and the intermediary between patients and dentists(4.60 points). And they were friendly(4.64 points), responsible(4.81 points), and worthwhile job(5.01 points). However their appell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yet(4.00 points), they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nursing assistants(4.37 points), and their task did not differs from AN(4.53 points). Also they compared to other job was not stressful job(3.58 points).

Conclusions : Refer to these results, those will be the basi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tatus establish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for the upright role as a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addition, those will help to patients in the future, and become an effective instrument to learn knowledge, skill, and service that needed to conduct business.(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1):103-111)

keyword : college-preparatory students, dental hygienist, recognition,

색인 : 인식도, 입학준비생, 치과위생사

1. 서론

현대 문명의 발달은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최근 건강목표로 인간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건강증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건강의 개념이 총체적인 생활개념으로 파악되고 있고 건강의 필수적 요소가 구강건강이라고 보게 되었으며,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고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¹⁾.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고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양질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업무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구강보건의료 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²⁾. 진료 분담 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 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다³⁾.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구강병을 예방하고 교육하는 자로 구강보건향상 및 구강위생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⁴⁾.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어 전문화, 세분화, 다양화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⁵⁾.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던 과거와 달리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까지 포함하는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의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간의 인력확보경쟁도 심해지고 있다⁶⁾.

위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환자가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정립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치과위생사를 육성하고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⁷⁾.

기존의 다양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7~12)}.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치과에 내

원하는 환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이고, 입학준비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의 직무분장과 위상적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현 치위생(학)과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1년 8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경주, 부산, 대구, 포항, 울산 등의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자가 영남지역의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경주 S대학에 방문한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수거하였다. 총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2부를 제외한 328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신⁸⁾, 박⁹⁾, 조¹⁰⁾ 등이 연구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 문항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의 4문항과 치과위생사의 인식에 관한 단답형 4문항과 복수응답 1문항, 대상자의 인식 척도를 알아보기 위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다소 그렇지 않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산출하였다.

2.3 통계분석

연구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인식에 관한 복수응답에 관한 항목은 frequency 분석하였고, 단답형 항목은 Chi-Square 분석, 척도형 항목

은 t 검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3. 연구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성이 15.5%, 여성이 84.5%로 대부분 여성이었고, 나이는 만 18~19세는 78.7%, 20세 이상은 21.3%로 대부분 20세 미만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생 82.6%,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7.6%로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다. 또한 대입준비생들의 희망 지원학과는 보건 계열학과가 50.6%, 비보건 계열학과가 49.4%,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경주 30.8%, 울산 31.7%, 부산 11.9%, 포항 8.5%, 대구 3.4%, 기타 13.7%로 대부분 경주와 울산지역 학생들이었다(Table 1).

3.2.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단답형-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은 단답형 항목인 명칭 인지 유무, 다른 직원들과 구별, 호칭, 학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3.2.1. 치과위생사의 명칭 인지 유무

조사대상자의 87.2%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명칭을 인지하였고 12.8%는 인지하지 못했다. 조사대상자의 희망지원 학과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명칭 인지 유무는 보건 계열이 96.4%, 비보건 계열이 77.8%로 평균적으로 87.2%가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인지하였다. 희망지원 학과에 따른 명칭 인지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2).

3.2.2. 치과위생사와 다른 직원과의 구별

조사대상자의 51.5%는 업무를 보고 치과위생사를 구별할 수 있었고, 12.8%는 복장, 11.3%는 명찰을 보고 알 수 있었으며, 12.8%는 치과위생사를 구별할 수 없거나 알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희망지원학과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구별은 보건 계열이 업무(74.7%), 복장(14.5%), 명찰(6.0%) 순이었고, 비보건 계열이 업무(27.8), 호칭(16.7%), 명찰(16.7%)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p < .001$) (Table 2).

3.2.3. 치과위생사에 대한 호칭

조사대상자의 35.4%는 치과위생사를 간호사라고 호칭하였고, 24.7%는 선생님, 19.2%는 언니라고 호칭하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8)

Variables		N	%
Gender	Male	51	15.5
	Female	277	84.5
Age	18~19	258	78.7
	Over 20	70	21.3
Education	High school	271	82.6
	More than college	57	17.6
Support department	Health	166	50.6
	Etc	162	49.4
Habitation	Gyeongju	101	30.8
	Ulsan	104	31.7
	Busan	39	11.9
	Pohang	28	8.5
	Deagu	11	3.4
	Etc	45	13.7

다. 치과위생사로 바르게 호칭하는 대상자는 8.8%뿐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희망지원학과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호칭은 보건 계열이 언니(32.5%), 간호사(26.5%), 선생님(21.7%)이었고, 비보건 계열이 간호사(44.5%), 선생님

(24.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2).

3.2.4. 치과위생사의 학력

조사대상자의 43.0%는 치과위생사의 학력을 3년 과정

Table 2. Recognition for dental hygienist

		Support department			p			Support department			p
		Health (%)	Etc (%)	Total (%)				Health (%)	Etc (%)	Total (%)	
Name	Yes	160 (96.4)	126 (77.8)	286 (87.2)	.000	Distinction	Uniform	24 (14.5)	18 (11.1)	42 (12.8)	.000
	No	6 (3.6)	36 (22.2)	42 (12.8)			Badge	10 (6.0)	27 (16.7)	37 (11.3)	
	Total	166 (50.6)	162 (49.4)	328 (100.0)			Work	124 (74.7)	45 (27.8)	169 (51.5)	
						Call	2 (1.2)	27 (16.7)	29 (8.8)		
						Introduce	0 (0.0)	9 (5.5)	9 (2.8)		
						Etc*	6 (3.6)	36 (22.2)	42 (12.8)		
						Total	166 (50.6)	162 (49.2)	328 (100.0)		
Appellation	Maam	36 (21.7)	45 (27.9)	81 (24.7)	.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8 (4.8)	27 (16.7)	35 (10.7)	.000
	Nurse	44 (26.5)	72 (44.5)	116 (35.4)			Two years of college	10 (6.0)	36 (22.2)	46 (14.0)	
	Dental hygienist	20 (12.1)	9 (5.5)	29 (8.8)			Three years of college	114 (68.7)	27 (16.7)	141 (43.0)	
	Lady	54 (32.5)	9 (5.5)	63 (19.2)			University	26 (15.7)	54 (33.3)	80 (24.4)	
	Miss	0 (0)	9 (5.5)	9 (2.7)			Academy of nurse	6 (3.6)	9 (5.5)	15 (4.6)	
	Etc	12 (7.2)	18 (11.1)	30 (9.2)			Etc	2 (1.2)	9 (5.5)	11 (3.3)	
	Total	166 (50.6)	162 (49.4)	328 (100.0)			Total	166 (50.6)	162 (49.4)	328 (100.0)	

* the responses of “distinction”, and “unknowability”

전문대학이라고 응답하였고, 24.4%는 대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14%는 2년 과정 전문대학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희망지원학과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학력은 보건 계열이 3년제 전문대학(68.7%), 대학교(15.7%), 2년제 전문대학(6.0%) 순이었고, 비보건 계열이 대학교(33.3%), 2년제 전문대학(22.2%), 고등학교(16.7%), 3년제 전문대학(16.7%) 순이었다.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의 치과위생사의 학력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2).

3.3.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복수응답-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로부터 받아 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복수 응답수의 15.6%는 치석제거, 14.7%는 진료협력업무, 11.5%는 칫솔질 교습, 11.0%는 접수 및 수납 업무였다. 그밖에 진료약속(9.6%), 치료계획 설명(8.2%), 치과방서선 촬영(8.1%), 치면연구전색(6.7%), 불소도포(4.7%),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식이조절(1.0%) 등의 서비스를 받아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3).

Table 3. Received services from dental hygienist (N=328)

Variables	Response number*	%
Scalling	157	15.6
Assistant of treatment	148	14.7
Diet control	10	1.0
Fluoride application	47	4.7
Appointment of treatment	97	9.6
Sealant of tooth	68	6.7
Tooth brushing instrument	116	11.5
Radiography of dental	82	8.1
Description of treatment plan	83	8.2
Reception & receipt	111	11.0
Etc	2	0.2
Unknowability	87	8.6

* multiple responses

3.4.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척도형-

치과위생사에 대한 입학준비생들의 인식도를 척도형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항목은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이다.”, “구강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칭이 적립되어 있다.”,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 “간호조무사와 구분된다.”,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다르다.”, “친절하다.”, “단정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보람 있는 직업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의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3.4.1. 측정도구의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추정에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척도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892이었다 (Table 4).

3.4.2. 희망 지원계열에 따른 치과위생사 인식도

입학준비생들의 희망지원 계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식도에서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이다.”라는 질문에 보건 계열 지원자들은 5.61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들은 4.00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들이 1.61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들은 5.46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들은 4.28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들이 1.18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호칭이 적립되어 있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들은 4.33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는 3.67점으로 보건 계열이 0.66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가 5.08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가 4.11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가 0.97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와 구분된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가 5.00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는 3.72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가 1.28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다르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가 5.00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가 4.06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가 0.94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친절하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는 5.31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는 3.94점으로 보건

Table 4. The validity(Cronbach's α) of the instrumentation

Questions	α^*
Dental hygienist is the professional.	.892
plays an important role in oral health.	
was formulated the appellation.	
is acts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dentist and the patient.	
is possible to separate from nursing assistant.	
has different tasks of the nursing assistant.	
a friendly.	
is a neat.	
has a responsibility.	
is a worthwhile career.	
is a highly stressful job.	

* likert scale(range= 1~6 point)

Table 5. Recognition of dental hygienists by the application department

Variables		N	M	SD	p	Variables		N	M	SD	p
		(%)	(%)	(%)				(%)	(%)	(%)	
Professional	Health	166	5.61	.744	.000*	Friend	Health	166	5.31	.959	.000*
	Etc	162	4.00	1.295			Etc	162	3.94	.973	
	Total	328	4.82	1.326			Total	328	4.64	1.183	
Role	Health	166	5.46	.938	.000*	Neatness	Health	166	5.51	.844	.000*
	Etc	162	4.28	.934			Etc	162	4.22	.788	
	Total	328	4.88	1.106			Total	328	4.87	1.038	
Appellation	Health	166	4.33	1.057	.000*	Responsibility	Health	166	5.43	.924	.000*
	Etc	162	3.67	1.057			Etc	162	4.17	1.070	
	Total	328	4.00	1.106			Total	328	4.81	1.182	
Intermediary	Health	166	5.08	.870	.000*	Worthwhile	Health	166	5.66	.783	.000*
	Etc	162	4.11	.997			Etc	162	4.33	1.158	
	Total	328	4.60	1.053			Total	328	5.01	1.189	
Separation	Health	166	5.00	1.044	.000*	Stressful job	Health	166	3.22	1.176	.000*
	Etc	162	3.72	1.287			Etc	162	3.94	.973	
	Total	328	4.37	1.332			Total	328	3.58	1.139	
Task	Health	166	5.00	1.009	.000*						
	Etc	162	4.06	1.082							
	Total	328	4.53	1.146							

*p<.001

계열 지원자가 1.37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단정하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는 5.51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는 4.22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가 1.29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가 5.43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가 4.17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가 1.26점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친절하고, 단정하며,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보람 있는 직업이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가 5.66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가 4.33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가 1.33점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라는 질문에는 보건 계열 지원자가 3.22점, 비보건 계열 지원자가 3.94점으로 보건 계열 지원자가 0.72점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Table 5).

4.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와 다르게 전문직이고 개인의 책임이 수반되는 진료 분담 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서 치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다. 직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미지가 좋을수록 사회인식이 높아질 것 마련이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역사가 40년 이상 지났음에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에는 많은 차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¹¹⁾.

현재 국민의 경제적 수준 향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21세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날이 커지고 있다¹³⁾. 또한 의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로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스스로 구강병 예방이 가능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진학과 진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대학(교) 입학준비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은 조사 대상자의 87.2%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희망지원 계열에 따른 차이는 보건 계열이 96.4%, 비보건 계열이 77.8%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¹⁰⁾의 결과 47%와 정 등¹²⁾의 결과 46.6%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¹⁰⁾이거나 지역주민¹²⁾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대부분인 입학준비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와 다른 직위과의 구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51.9%는 업무를 보고 구별할 수 있었고, 12.8%는 치과위생사를 구별할 수 없거나 알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 등¹²⁾의 결과와 35%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생각되어진다. 희망지원 계열에 따른 차이는 보건 계열은 74.7%가 업무를 보고 알 수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비보건 계열은 27.8%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구별할 수 없거나 알 수 없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건 계열은 3.6%인데 비하여 비보건 계열은 22.8%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관하여 입학준비생들에게 소개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치과위생사의 호칭에 대해서는 35.4%가 간호사라고 부르고 있었고, 선생님(24.7%), 언니(19.2) 등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단지 8.8%만이 치과위생사라고 부르고 있었다. 정 등¹²⁾의 결과에서는 간호사(38%), 선생님(21%), 언니(13%)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치과위생사를 잘못된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정 등¹²⁾의 호칭에 관한 논문에서도 치과위생사라고 올바르게 부르는 경우가 5.07%에 불과해 치과위생사에 대한 호칭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간호사라고 잘못 호칭하는 것이 35.4%나 되었다.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올바르게 부를 수 있도록 소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치과위생사의 학력에 대해서는 3년제 대학(43.0%)이나 대학교 이상(24.4%)으로 알고 있었다. 희망지원 계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건 계열 지원자의 경우 68.7%가 3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보건계 지원자는 33.3%가 대학교라고 응답하였다. 보건 계열 지원자보다 비보건 계열 지원자들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학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로부터 받아 본 서비스는 치석제거(15.6%), 진료협력업무(14.7%), 칫솔질 교습(11.5%) 등이었다. 조 10)의 결과에서는 치석제거(14.5%), 환자약속(12.9%), 방사선촬영(12.8%)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생각되어진다. 치과위생사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인 구강병 예방업무에 관하여 받아 본 서비스는 치면열구전색(6.7%), 불소도포(4.7%), 식이 조절(1.0%) 등의 업무가 낮게 응답되었다. 조¹⁰⁾의 결과에서도 치면열구전색(3.4%), 불소도포(2.1%), 식이조절(1.7%)로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본 조사와 조¹⁰⁾의 연구결과를 볼 때, 구강병 예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입학준비생들의 인식도를 척도형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이고(4.82점), 구강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4.88점) 환자와 치과의사 사이에 중간역할을 한다(4.60점)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친절하고(4.64점), 책임감이 강하며(4.81점), 보람 있는 직업(5.01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점은 임상에 있는 치과위생사나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에게 앞으로 치과위생사로서 배우고 실천하는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라는 호칭은 보건 계열 및 비보건 계열 지원자 모두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00점), 간호조무사와의 구별(4.37점)이나 업무(4.53점)에 있어서는 다른 인식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나타냈다. 또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3.58점). 치과위생사의 호칭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올바른 호칭으로 불러질 수 있도록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적극적인 소개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와도 구별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업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한다면, 임상에 있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분장 및 위상정립과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문 의료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치과위생사로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서비스의 개념을 익히는데 효과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입학준비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 등의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인식도도 후속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점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스로 구강병 예방이 가능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진학과 진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8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자가 영남지역의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경주 S대학에 방문한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수거하였다. 총 32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7.2%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명칭을 인지하였고, 51.5%는 업무를 보고 치과위생사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67.4%는 치과위생사의 학력을 3년 과정 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로부터 받아 본 의료 서비스는 치석제거(15.6%), 진료협력업무(14.7%), 칫솔질 교습(11.5%), 접수 및 수납(11.0%) 등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은 전문직이고(4.82점), 구강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4.88점) 환자와 치과의사 사이에 중간역할을 한다(4.60점)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친절하고(4.64점), 책임감이 강하며(4.81점), 보람 있는 직업(5.01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라는 호칭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00점), 간호조무사와의 구별(4.37점)이나 업무(4.53점)에 있어서는 다른 인식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나타냈다. 또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3.58점).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한다면, 임상에 있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분장 및 위상정립과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문 의료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치과위생사로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서비스의 개념을 익히는 데 효과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영남지역 외의 다른 지역, 입학준비생 외의 치과 내원환자와 일반인 등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예방교육을 홍보하고 올바른 치과위생사 인식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 대한 인식도 비교연구. 마산보건의대학 논문집. 1998;12:217-235.

10. 조수희.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천안:단국대학교 대학원;2000.
11. 최은미, 송윤신, 이선. 서울·경기지역 주민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와 선호도 조사연구. 京福論叢 2004;8:399-414.
12. 정원균, 손아란, 정혜령 외 4인. 일부 지역사회 주민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및 업무 인지도 조사. 한국치위생학회 2006;6(4):403-417.
13. 김종인. 보건의료행정의 사회적 접근 방법 모형에 따른 모형연구. 원광대학교 논문집. 1991;35:325-350.

참고문헌

1. 강부월, 광정숙, 권수진 외 37명. 공중구강보건학. 2판. 서울:고문사;2010:1-22.
2. 성정민, 문윤미. 치과의원의 의료서비스에 따른 내원환자의 만족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5):741-747.
3. 박용덕, 강종오, 김동열 외 10명. 의료관계법규. 서울:대한나래;2011:277-283.
4.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명. 공중구강보건학. 4판. 서울:고문사;2010:431-470.
5. 유소연, 박은미, 장종화.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가치관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가치관의 관련성.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3):353-361.
6. 강부월. 임상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2005;23(1):19-27.
7. 유미선, 김윤정, 김지영. 치과환자의 치과위생사 인식에 관한 연구. 齒科研究 2003;56(4):61-71.
8. 신선행.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조사. 진주보건대학 논문집. 1991;14(1):389-398.
9. 박정란. 서울과 마산 지역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